

## 왕자루이 방북을 계기로 본 북한과 중국의 당·정·군 관계

###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지난달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锦涛)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김정일의 견재함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현 단계 북·중관계가 긴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김정일이 후진타오의 방중 요청을 수락한 점, 양국이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우호의 해’로 정하고 강조한 점 등에서 볼 때, 향후 북·중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직후 중국이 이를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한바 있고, 북한도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로 중국을 제외했던 경우와 같은 갈등관계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당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긴밀함을 사회주의 국가 간 특수한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북·중관계가 중요하다는 김정일의 발언은 ‘혈맹’으로 표현되던 동맹관계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당·정·군 관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당 대 당의 관계, 즉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의 관계이다. 중국과 북한 모두 일당독재의 국가로서 당이 국가정책결정의 원천이다. 중국의 경우, 당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중시하는 특성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곧 북·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다.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로들이나 고위층들은 북한과의 전통과 우호를 중시하고 사회주의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한다. 당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대외연락부가 채널로서 활용되며, 매년 당 대표단이 북한을 우호 방문한다. 이번 왕자루이의 방북이 대표적인 예이며, 북한 역시 당 대 당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둘째, 정 대 정의 관계이다. 국무원 산하 외교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채널이다. 중국의 국익과 대외전략에 기반 해 대미관계를 중시하면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영향력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중관계 역시 일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간주하며, 국제관계의 이해 속에서 사안별로 협력 또는 갈등 관계를 보인다. 북한을 전통 및 우호 차원이 아닌 국익에 따른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나, 북한에 대한 대미 ‘부담론(liability school)’, 중국책임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지원과 설득만이 아닌 대북 제재 및 압박 등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도 고려하며, 한반도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셋째, 군 대 군의 관계이다. 중국과 북한 군부 간 관계는 과거 혈맹의 전통이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군부는 북한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와 안보적 ‘완충지대론(buffer-zone school)’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즉, 중국의 동북지역 안정 및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견제하는 전통적 안보관에 따

라 북·중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사시 군사개입조항이 있는 북·중 우호협력조약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복원하고자 한다. 다만, 양국 간 군사관계는 실질적인 군사협력보다는 친선우호 관계 차원의 교류와 국익을 고려한 공식적 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탈 냉전기 북·중 간 당 대 당의 관계는 전통우호협력관계이고, 정 대 정의 관계는 갈등을 내포한 협력관계이고, 군 대 군의 관계는 혁명의 전통이 내재한 우호협력관계이다. 물론 겉직과 당의 지배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중국체제의 특성상, 당·정·군의 대북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정·군의 주요 인사가 망라된 ‘영도소조(領導小組)’에서 합의에 의해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당·정·군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 단계 북·중관계는 공식적으로 전통 우호협력관계이나, 실제 정책 추진 상 각자 국익을 고려한 사안별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협력관계로 평가된다. 즉, 일반 국가 간 관계로 완전히 전이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전통관계가 내재해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왕자루이의 방북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금융위기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중 양국이 모두 양자 간 협력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도 북·중 전략적 협력강화가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주는 긍·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